

vol.24 | 2018년 10월호

교사-학생이 함께하는 수업 혁신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수업 혁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늘어나면서 수업 혁신의 방식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하브루타(chavruta),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 소프트웨어(software) 교육 등의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혁신해나가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을 들어봅니다.

10월호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하브루타 수업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이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공부법으로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며 논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재희 충남 원이중 교사의 하브루타 수업 내 생각에 친구 생각 더하면? 감상의 깊이가 달라져요



월드카페 토론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원이중 제공

공립형 기숙 중학교인 충남 원이중의 방과후수업시간. 학생들은 모둠별로 “여자와 엄마의 삶은 무엇이 다를까?” “무인도에 무언가 한 가지를 두고 올 수 있다면 무엇을 두고 올까?”와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하브루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브루타 수업이란 2명 이상의 학생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질문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토론 수업이다.

심재희 원이중 사회교사는 학생들이 인문학적 감수성을 기르고,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고·사·리 디톡스(고전·사회학·인문학에 대한 디베이트 토론 쓰기, 30차시)’ 방과후수업을 기획했다. 학생들은 소설 △벼랑 △무인도의 부자노인 △경년을 읽고 영화 ‘이퀄 리브리엄’ 등을 감상한 뒤 모둠 하브루타를 통해 작품의 줄거리를 요약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작품의 내용을 깊이 이해했다.

심 교사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페미니즘을 비롯해, 학생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학교폭력, 금전과 그 밖의 가치를 비교한 작품을 보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면서 작품과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었다”며 “친구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과정을 통해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세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작품감상에 깊이를 더하는 ‘하브루타’

심 교사는 수업에 앞서 책상을 ‘ㄱ’자로 배열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 교실을 마치 카페처럼 만들었다. 하브루타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 사람들이 카페에서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교실 분위기를 부드럽게 조성해 학생들이 편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면 학생들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감상한다. 이후 4인 1조로 모둠 하브루타를 실시해 줄거리를 요약한다. 줄거리를 요약할 때에는 ‘기승전결’ 4단계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 한 학생이 인상 깊었던 장면과 이유를 말하면 그 다음 학생은 반드시 해당 장면 이후의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해 말해야 한다. 그래야만 완결구조를 갖춘 줄거리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

줄거리 요약은 마치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지에 개별 질문을 만들고, 짝과 의견을 교환하는 짝공 하브루타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모습을 그린 소설 ‘벼랑’을 읽은 뒤에는 “누가 가장 나쁜 아이인가?” “임대아파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 등의 질문을 건네며 책의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봤다.

심 교사는 “이는 추후 전개될 월드카페 토론의 사전 단계 활동”이라며 “평소 책을 빠르게 넘겨 읽으며 책의 대략적인 흐름만 이해하던 학생들이 줄거리를 요약하고, 질문을 만들기 위해 책의 장면 장면을 꼼꼼히 읽으면서 텍스트의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단체 토론으로 ‘비판적 사고능력’ UP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는 월드카페 토론을 실시한다. 이는 일종의 단체 하브루타로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모둠은 카페주인(사회자)을 한명 선정한 뒤 앞서 만든 개별 질문을 활용해 10~15분간 모둠 토론을 실시한다. 이때 카페주인과 모둠원은 토론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전지에 자유롭게 적는다. 토론이 종료되면 카페주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둠원은 다른 모둠으로 자리를 이동해 다른 주제로 토론을 실시한다. 카페주인은 새로운 구성원에게 앞서 진행된 토론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다. 이와 같은 모둠 토론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

교실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토론은 교사가 사회자가 되어 수십 명의 학생 중 몇몇 학생을 지목해 생각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표에 소극적인 학생들이 자칫 소외되기 쉬운 구조다.

하지만 월드카페 토론을 실시하면 모든 학생들이 한 가지 책(영화)에서 파생된 다양한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심 교사는 “월드카페 토론은 질문의 깊이를 더하는데도 효과적”이라며 “수업 초기에는 책의 사실관계를 묻는 수준의 질문을 만들다가도 친구, 교사와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 자신의 삶의 태도, 가치관 등을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을 만들었다. 또는 책 속에 등장한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연관된 문제를 다룬 질문에 대해 경험담을 털어놓으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기도 했다. 심 교사는 “페미니즘, 사춘기 청소년의 성 문제를 다룬 소설 ‘경련’은 자칫 남·여학생 성대결로 번지기 쉬운 소재였다”며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이 겪은 성차별 경험을 진솔하게 털어놓자 공감의 폭이 넓어지며 의견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교사의 수업지도 노하우

“삶과 연계된 다양한 교사의 수업지도 노하우 질문 만들 수 있는 ‘작품’ 선정해야”

Q.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과 분위기를 제공해야 한다. 대다수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것에 겁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 지나치게 학습 방향과 어긋나는 내용의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저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처음부터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을 구별하기보다 자유롭게 질문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그림, 감정, 가치 등이 적힌 카드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생각, 감정과 연관 있는 카드를 한 장 고르거나 한 뒤 카드를 고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면 보다 손쉽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다.

Q. 수업의 효과는?

하브루타 수업은 학생들이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량 신장에 매우 효과적이다. 학생들은 △사회 구조와 개인의 갈등 △페미니즘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다룬 다양한 작품을 읽고 그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처음에는 수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던 학생들이 나중에는 “다음 수업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 거예요?”라고 먼저 물으며 적극적인 참여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Q. 하브루타 수업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콘텐츠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의 배움이 실제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수업 참여도가 매우 낮아진다. 즉, 삶과 교과의 연관성을 이어주는 콘텐츠, 상상의 여지가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련’과 ‘벼랑’을 선택한 이유도 교우관계를 중시하는 중학생들이 각각 사춘기 성 문제와 학교폭력을 다룬 작품을 통해 자신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싶어서였다.

또한 수업 초기에는 학생들이 만든 질문의 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질문을 정제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처음에는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생략된 내용을 유추하는 질문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신의 경험, 가치관, 우리 사회 문제와 관련된 이슈와 연관지어 질문을 만들도록 한다. 그래야만 사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함께 책을 읽은 후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은지 교사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심재희 충남 원이중 사회 교사